

 국토교통부		<h1>보도참고자료</h1>	
		배포일시	2019. 12. 10(화) 총 4매(본문2)
담당 부서 국토정책과	담당 자	• 과장 정의경, 사무관 최찬, 주무관 김연우 • ☎ (044) 201-4733, 4744	
보도일시		2019년 12월 1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10(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환경부와 같이 지속가능한 국토 만든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연계·수립 -
- 지속가능 국토발전 도모 위해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하여 수립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두 계획의 연계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작년 10월 2일에 발족, 실무협의체와 실무전담팀(TF)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 >

- ①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
- ②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 ③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 ④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 ⑤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 두 부처는 5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토모니터링(국토부)과 국가환경모니터링(환경부)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하고, 계획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이행관리 방안 또한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이행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최찬 사무관(☎ 044-201-4733, 47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배경

-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 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추진

※ 국정과제(59-1):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 국토·환경계획 통합

* 대상계획 : (국토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관리계획
(환경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시·군·구 환경보전계획

□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주안점

- 절차적 측면 : 환경부-국토부 정책협력체계 구축·운영

-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구성('18.10, 공동위원장: 국토부·환경부 차관) 및 실무 협의체(과장급), 실무TF 지속 운영('18.11~)

-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하여 시간적 범위의 정합성 확보

* (국토) 제1차('72~'81), 제2차('82~'91), 제3차('92~'01), 제4차('00~'20), 제5차('20~'40)
(환경) 제1차('87~'01), 제2차('96~'05), 제3차('06~'15), 제4차('16~'35), 제5차('20~'40)

- 내용적 측면 : 연계요소 발굴 및 상호 반영

- 미래 전망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공간 미래상 공유

- 5대 통합관리 추진전략 마련 및 전략별 세부내용 간 상호 수용

- 통합관리 추진전략별 하위계획 지침을 각 계획에서 제시

※ (예시) 전략2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국토관리

- (국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생태축을 복원하고, 파편화된 생태 자원을 연결·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환경) 국가 및 광역생태축을 보전하면서 이에 연결되는 도시 생태축 연결망을 구축하고 생태축 연결망의 단절지역은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복원계획을 마련한다.

□ 통합관리 주요 내용

①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

①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 구조 개편	②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관리	③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④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⑤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축소) 도시내 부지 우선 활용 및 녹지 조성 ○ (친환경관리) 유휴·방치공간 재자연화, 쇠퇴 지역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생태축) 백두대간 등 국토환경 네트워크 강화 ○ (생태공간 확충) 도시 녹지공간·비오톱 확충, 생태훼손 단절지역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온실가스 저감 공간 계획·교통 체계, 그린인프라 구축 ○ (기후 회복력) 기후재난, 재해 안전관리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그린인프라 보급 ○ (신산업기반) 탄소산업 클러스터 등 친환경 산업 분야 육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협력) 한반도 주요 생태축 연결, 환경을 고려한 협력 등 ○ (국제협력) 국제기구 역할 강화, 신기후체제 이행 등

②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평가 : 정책환류 강화

- (국가계획) 국토모니터링(국토부)과 국가환경모니터링(환경부)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보완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예정
 - 계획별 모니터링 지표 마련 시 통합관리 지표의 공동 발굴 추진
- (지자체 계획) 지자체 단위 연계는 기존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평가·관리
 - * 국토계획평가(도시군기본계획⇔환경보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도시군관리계획⇔환경보전계획)

③ 지자체 통합관리 추진기반 구축 : 실행력 강화

- (수립지침 개정)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 추진
- (업무매뉴얼 마련) 지자체 통합관리 업무 매뉴얼을 공동 개발·보급하여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등 추진 지원
- (공간정보 강화) 지적도, 도시생태현황지도 등 지역의 국토환경공간 정보 구축·활용을 지원하여 통합관리 작동기반 강화